

폴란드의 공유유산 정책: 역사를 공유하는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관리*

손은신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길지혜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객원연구원

들어가며

2000년대 이후 유네스코(UNESCO), 이코모스(ICOMOS) 등 문화유산 관련 국제기구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공유유산(shared heritage)은 통상적으로 ‘국가 간 문화유산의 가치 공유’라는 기조로 제시된 용어로서, 학술적으로 명확하게 정립된 개념은 아니다. 이에 공유유산은 인류 전체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공동으로 보호하는 세계유산의 경우를 비롯하여 문화적·지역적으로 여러 국가에 속해 있는 연속유산·초국경유산 등을 지칭하는 경우, 지리적·문화적 여건 등에 의해 형성된 다문화·다국적 유산의 가치를 함께 보존하고 관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등 다양한 용례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공유유산 개념 논의가 국제적으로 진행되면서, 각 국가의 여건에 맞게 공유유산 개념을 적용하여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 공유유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여러 국가 중 역사를 공유하는 접경지역의 유산을 공유유산으로서 보존·관리하는 폴란드의 공유유산 정책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폴란드 공유유산 정책 추진 배경 및 사업체계**

폴란드,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몰도바,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독일 등 중부 및 동부 유럽 지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경 변화가 여러 차례 이루어진 지역이다. 따라서 폴란드의 역사 유산이 리투아니아·벨라루스·우크라이나 영토에 있기도 하며, 독일 유산이 폴란드 국경 내에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배경에 의해 해당 국가들은 ‘국경 변화

* 이 글은 건축공간연구원에서 2023년 기본과제로 수행한 <공유유산 개념을 적용한 국외사적지 활용·관리 정책 연구>(손은신·이규철·송인현·박채린·길지혜·임종현)를 바탕으로 재정리하였다.

** 폴란드의 사업 관련 내용은 Cielatkowska(2008), Herych(2014)를 주로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에 따라 역사적 건축물이 쇠락하거나 정체성과 장소 정신을 잃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이에 1992년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정부의 문화유산 보호 협정 체결을 시작으로, 폴란드-우크라이나-벨라루스 등 인접 국가들이 폴란드를 중심으로 공유유산 관련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1992년 체결된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정부 간 문화유산 보호 협정에서는 보물, 문화재, 기록물, 도서관 자료 등을 대상으로 자료의 수집·보존·복원·재구성·접근성 관련 부문에 대해 협력을 약속하였다. 또한 폴란드 국경 밖 문화유산에 대한 목록화, 사진·측량 등 복구를 위한 기초 연구, 유산의 복원·복구 지원, 출판, 국제회의, 전시, 대중 홍보를 통한 정보 및 지식 전파 등의 사업 목표를 마련한 바 있다.

현재 폴란드의 공유유산 사업은 문화 및 국가유산부(Ministry of Culture and National Heritage of Poland)에서 주관하는 정부주도 사업이며,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가 협력 관계로 참여하고 있다. 사업 시행은 폴란드 국가유산 이사회(National Heritage Board of Poland), 바르샤바 예술학교(Warsaw Academy of Arts) 등 전문가 집단·기관 및 소재국 내 관련 부처가 함께 협력하여 수행한다.

폴란드의 주요 공유유산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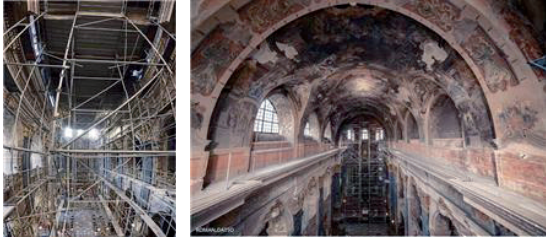
폴란드의 공유유산 사업은 인벤토리 구축 및 유산 조사, 중요 역사적 건축물의 복구·복원 지원, 전담기구 설립, 초국경 협력 프로그램 지원, 세계유산 공동 등재 등 다각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공유유산 사업 대상지 및 대상 국가를 기준으로 폴란드의 주요 공유유산 사업을 네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소개한다.

리비우 역사지구 내 주요 건축유산 보존·복구

리비우 역사지구(L'viv-the Ensemble of the Historic Centre)는 1998년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크라이나의 세계문화유산이다. 리비우는 도시구조 및 건축양식에 이탈리아·독일과 동유럽의 전통이 융합되어 있으며, 도시에 다양한 문화와 종교 전통을 가진 소수민족 집단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국가의 역사적 층위가 결합한 도시 팔림프세스트(palimpsest)와 같은 특성을 지닌다.

특히 리비우 역사지구의 형성은 폴란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리비우는 과거 폴란드에 400년 동안 속해 있던 지역으로, 1941년 독일에 점령되었다가 이후 우크라이나 소비에트공화국에 포함되었고, 1991년 우크라이나에 속하게 되었다. 이에 리비우 지역에는 다수의 폴란드 유산이 남아 있어 공유유산으로서 유산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08년, 리비우 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하여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는 공동으로 '다문화 유산의 보존과 수리(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multicultural heritage)'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심포지엄 이후 리비우 역사지구 내 폴란드 관련 건축물에 대한 인벤토리가 구축되었다. 2014년에는 폴란드에서 400만 즈위티(약 12억 8,000만 원)를 지원하여 Garrison 교회를 비롯한 주요 건축물의 복구 및 복원 사업을 지원하였다. 특히 리비우 역사지구 내 건축유산의 다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의 관련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하여 연구와 함께 복구 작업을 수행하였다. 예산의 경우 폴란드의 문화 및 국가유산부가 주로 지원하였으나, 리비우시 역사환경부에서도 기금을 지원하였고 일부는 기부금을 모금하기도 하였다.



리비아 Garrison 교회 공사 현장(좌) 및 리노베이션 이전(우) 모습
출처: 유로메이단 홈페이지. <https://euromaidanpress.com/2021/11/17/international-project-renovates-priceless-frescoes-in-historic-garrison-church-in-lviv>(검색일: 2023.10.20.)

특히 2022년 이후에는 전쟁으로 위협에 처한 우크라이나의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폴란드 문화 및 국가유산부에서 우크라이나 문화지원센터(Support Center for Culture in Ukraine)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센터 운영에는 폴란드 국립문화유산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 조직이 주로 참여하고 있다.

조브크바 문화유산 조사·보수 및 국제센터 설립

우크라이나의 조브크바(Zhokvka)는 '이상 도시'라는 이탈리아 건축 이론을 적용하여 설계한 폴란드 세계유산인 자모시치(Zamość)의 영향을 받아 세워진 도시이다. 2000년경 폴란드의 자모시치 보존·복원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와 유사한 도시인 우크라이나 조브크바의 문화유산 보호에 폴란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조브크바 공유유산 사업의 주요 꼭지로는 문화유산 조사 및 보수와 함께 전담기구로서 국제센터 설



조브크바 성 건물 파사드의 사진 측량 작업
출처: Herych(2014, p.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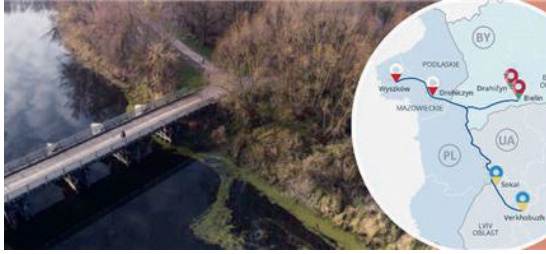
립을 들 수 있다. 2000년 조브크바시는 폴란드의 문화 및 국가유산부와 공동으로 문화유산 조사 및 보수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조브크바 성, 조브크바 대학, 옛 도미니카 수도원, 예수교회와 바실리안 수도원 등 역사적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물 사진 측량, 보존 상태 측량, 역사 연구, 실내·외 보수 및 복원, 역사기록 사본 구입 등이 수행되었다.

2008년에는 조브크바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in Zhokvka)가 설립되었다. 이 센터에서는 문화유산의 보호·보존·이용과 관련하여 유산관리자 및 이용자를 위한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폴란드 공동 세미나 및 국제회의, 공동 여름학기 학생 실습 프로그램 등도 운영하고 있다.

폴란드-벨라루스-우크라이나 공유유산 협력 프로그램*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유럽연합 커뮤니티 이니셔티브(EU Community Initiatives)의 일환으로 폴란드-벨라루스-우크라이나의 3개국 협력 공유유산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유럽연합(EU)은 2000년부터 국경을 넘어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협력을 위한 커뮤니티 이니셔티브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좋은 이웃(Good Neighbourhood)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관련 보조금을 지원한다.**

- * 폴란드-벨라루스-우크라이나 협력 프로그램 홈페이지. <https://pbu2020.eu>(검색일: 2023.10.22.); 유럽연합 Interreg 홈페이지. <https://interreg.eu/programme/cross-border-cooperation-programme-poland-belarus-ukraine>(검색일: 2023.10.22.) 참고하여 작성
- ** 다만 현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벨라루스에 대한 유럽연합 제재로 인해 2021년부터 2027년까지는 폴란드-우크라이나 초국경 협력 프로그램(Cross-border Cooperation Programme)을 운영 중이다.



버그강의 카약 관광 물길 트레일 사례

출처: 유럽연합 Interreg 홈페이지. <https://interreg.eu/programme/cross-border-cooperation-programme-poland-belarus-ukraine>(검색일: 2023.10.22.)

특히 유럽연합은 폴란드와 우크라이나가 최근 수년 동안 국경을 넘어 협력을 통해 문화유산과 관련된 공통의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여 지역 문화와 역사적 유산, 자연유산 등의 활용과 보존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까지 공동으로 지원을 받았던 폴란드·우크라이나·벨라루스는 보조금을 통해 두 국가 또는 세 국가가 함께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였다. 이러한 공유유산 협력 프로그램의 결과로, 버그강의 카약 관광 물길 트레일 개발(Bug Unites Us—creation of two cross-border touristic kayak trails), 폴란드와 벨라루스 간 청소년 및 창의그룹 근거지 마련을 위한 공유 문화유산 복원, 문화유산 및 역사유산을 활용한 청소년 문화센터 설립 등을 지원하였다.

세계유산 공동 등재, 카르파티아 지역의 목조 체르크바(Wooden Tserkvas of the Carpathian Region in Poland and Ukraine)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령 카르파티아산맥에 걸쳐 있는 16개의 교회는 2013년 세계유산인 ‘카르파티아 지역의 목조 체르크바(Wooden Tserkvas of the Carpathian Region in Poland and Ukraine)’로 등재되었다. 체르크바(정교회 교회)란 통나무 가로썬 기 공법으로 건축한 교회를 뜻하며, 과거 슬라브 지



카르파티아 지역의 목조 체르크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및 위치

출처: Herych(2014, p.88)

역에서 널리 유행한 건축양식이다.

세계유산 등재 준비 시 우크라이나 조브크바 국제센터와 폴란드 바르샤바 국가유산위원회가 함께 참여하였으며, 초국경 연속유산으로서 등재 이후 관리 및 운영은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문화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통합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에서 담당하고 있다.

나오며

문화재청은 2023년 국외소재문화재를 대상으로 대한민국과 소재국이 이를 ‘공동의 유산’으로 함께 인식하고 보호하는 ‘K-공유유산’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특히 건축물·장소 등의 국외사적지는 부동산 유산의 특성상 환수가 거의 불가능하며, 해외 국가에 위치하여 유지·관리가 쉽지 않아 멸실·훼손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K-공유유산 정책은 국외소재문화재 중 소재국과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공유유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대한민국과 소재국이 공동으로 보호·활용을 추진함으로써 국외소재문화재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문화재를 국제협력 및 교류의 매개체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된다.

폴란드의 공유유산 정책 추진 사례는 국내 K-공유유산 정책 추진 시 적용할 수 있는 다음의 세 가

지 시사점을 지닌다. 첫 번째는 폴란드의 문화 및 국가유산부를 중심으로 수행된 정부 주도형 공유유산 정책 사업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로 다양한 유형의 공유유산 프로그램을 수행·지원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국가 간 협약을 계기로 시작된 폴란드의 공유유산 정책은 이후 역사지구 내 중요 건축물의 복원·보수, 조사 및 기록화에 이어 전담기구로서 국제센터 설립·운영, 유럽연합 등 국제기구의 지원을 통한 국가 간 협력 프로그램 운영,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등 다양한 사업 유형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마지막으로 국가 간 상호 긍정적인 유산을 대상으로 공유유산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공유유산의 개념은 다문화·다국적 유산을 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용례의 경우 과거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의 관련 유산을 보호하는 패러다임으로 사용되었다는 비판적 지적이 있다.*

폴란드 공유유산 사업의 경우 인접 국가 간 국경 변경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접경지역에 다문화·다국적 문화유산이 형성되었고, 이러한 유산을 상호 긍정적 측면에서 해석하고 공유유산 정책을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국내 K-공유유산 사업 추진에 시사점을 지닌다.

* 일례로 이코모스는 1998년부터 공유건축유산 국제학술위원회(ISC SBH)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위원회는 개설 후 2002년까지 공유식민지건축(Shared Colonial Architecture) 학술 위원회로 운영되었다가 이후 '공유건축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제국주의와 식민지의 역사적 배경이 감춰지는 것을 우려, 이코모스 회원국들의 반대를 유발하기도 하였다. 네덜란드의 경우 정부 주도하에 전 세계 20여 개국을 대상으로 공유유산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국가 중 하나로 사업 유형과 추진 사업모델 등은 주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으나, 과거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국가 소재의 유산을 다수 발굴하고 지원한다는 점에서 개념적으로는 대한민국의 K-공유유산에 적확하게 대응시키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참고문헌

- 1 손은신, 이규철, 송인현, 박채린, 길지혜, 임종현. (2023). 공유유산 개념을 적용한 국외사적지 활용·관리 정책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 2 유럽연합 Interreg 홈페이지. <https://interreg.eu/programme/cross-border-cooperation-programme-poland-belarus-ukraine>(검색일: 2023.10.22.)
- 3 유로메이단 홈페이지. <https://euromaidanpress.com/2021/11/17/international-project-renovates-priceless-frescoes-in-historic-garrison-church-in-lviv/>(검색일: 2023.10.20.)
- 4 폴란드-벨라루스-우크라이나 협력 프로그램 홈페이지. <https://pbu2020.eu/>(검색일: 2023.10.22.)
- 5 Cielatkowska, R. (2008). Instead of an Introduction. In 16th ICOMOS General Assembly and International Symposium Proceeding.
- 6 Herych, V. (2014). Polish-Ukrainian Cooperation Concerning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on the Example of the City of Zhovkva (Ukraine). *Barometr Regionalny*, 12(4): 81-90.